

개 똥



memo

※ 모죽지랑가 [EBS 수특 46p]

1. 97년 수능, 제망매가 이후 향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2. 하지만 모평에서 드러난 문학사의 중요도에 따라 한번 읽어보자. 원문 위주로 나오면 (지난 6월 모평 '동동'처럼)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소망'을 찾아가며 읽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간 봄 그리매

▶ 죽지랑이 살아 있던 때를 그리워 함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구나

아름다움 나타내신

그시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눈 깜박할 사이에

맛보옵디 지스리

▶ 만나 뵈을 기회를 지으리이다. 재회에 대한 소망

郎(낭)이여 그릴 막스리 녀울 길

▶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에

다복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이시리

▶ 죽어서 죽지랑을 다시 만나기를 바람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는 노래. 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노래는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인생무상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한림별곡 [수특 50p]

1. 이 작품은 해석을 못해도 좋다. 나도 주석없이 설명 못하겠다.
2. 작품 구조는 한번 알고가자. 전반부는 상징적 의미 없이 단순 소재 나열이고 후반부에는 '경기엇더하니잇고'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이 등장한다.
3. 수특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8장이 중요하다. 다른 장과는 다르게 우리말 사용이 많아 부각되는 장이다.

(가)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소륙)
 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沖基對策(통기대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 경시부)
 위 試場(시당)사 景(경) 기 엇더하니잇고.
 葉(엽) 琴學士(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琴學士 (금혹스)의 玉筭門生(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제1장>

▶ 명문장과 금의(琴儀)의 문하생 찬양

[현대어 풀이]

[가]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변려문, /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을 맞추어 써 내려간 글, /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해의(解義), 김양경의 시와 부(賦) / 아,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굉장하다) /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 아, 나까지 몇 분입니까?

(다)

唐唐唐(당당당) 唐揪子(당추즈) 조합(早莢) 남기
 紅(홍)실로 紅(홍)글위 밭요이다.
 허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정소년)하.
 위 내 가는 덕 님 갈세라.
 葉(엽) 削玉織織(삭옥섬섬) 雙手(쌍수)사 길혜 削玉 織織(삭옥섬섬) 雙手(쌍수)사 길혜
 위 携手同遊(휴슈동유)사 景(경) 기 엇더하니잇고.

[다] 호도나무, 쥐엄나무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당기시라, 미시라 정소년이여. / 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다. / 옥을 깎은 듯 고운 손길에, 옥을 깎은 것처럼 고운 손길에 / 아, 마주 손잡고 노니는 정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제8장>

▶ 그네뛰기 광경과 풍류생활 찬양

※ 공방전 [수특 149p]

1. 전의 양식은 수능에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수능과 최근 기조로 볼 때 주의해야 할 작품임은 분명하다.
2. 인물 특징 위주로 읽어 내려가자.
3. 출제가 된다면 소설과 비교할 가능성이 크다.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엽전을 주조하는 과정이 드러남)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숲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가계와 탄생 배경

공방의 아버지인 천(泉)은 주나라의 태제(太宰)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엽전의 외양을 묘사하는 구절로, 겉으로는 원만한 성격을 보이나 내면에는 모가 나 있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성격임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溍)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僅)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궁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관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의 권세가 대단했으며,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공방의 외양과 성격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공방의 속물 근성이 드러난다.) 소위 시장 바닥 사귀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格五)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 근과 같다.”고 했다.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 야만 처리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곡량학(穀梁學)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공방이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남.



작품 해설

‘공방전’은 돈(엽전)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하려 한 가전이다. 주인공의 이름인 ‘공방’은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을 형용한 것이다. ‘공방’에 성격을 부여하여 실제 인물처럼 그리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성격이 거칠고, 걸은 둥글며 속은 모나고,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으며, 권세를 빙자하여 제멋대로 행동하고, 투기와 오락을 일삼는 등의 인물 특성은 돈이 가진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에 대한 함축도 지니고 있다. 공방이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또 임금된 사람은 신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등의 암시도 던져 준다.

memo

memo

※ 바리데기 [수특 190p]

1. 수업 시간엔 언급조차 안 했던 바리데기다. 하지만 2017년 모평부터 문학에 독서가 삽입되면서 문학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공방전에 이어 바리데기도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같은 맥락에서 수특 주몽신화도 빠질 수 없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생략한다.
2. 바리데기는 무가적 성격과 영웅 소설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한번 읽어 보자. 독해가 쉽지 않다.
3. 공방전, 바리데기 모두 교과서에 실린 기본 작품이다.

화소(話素)	서사 구조
왕이 아들을 낳으려고 치성을 드리지만 딸 여섯을 낳는다.	고귀한 출생
일곱 번째로 태어난 딸을 산에 버린다.	기아(棄兒- 버려짐)
왕과 왕비가 모두 병에 걸려 누군가 약물을 구해 와야 한다.	고난의 반복
집에서 기른 여섯 딸들은 모두 약물을 구해 오기를 거절한다.	
왕과 왕비를 찾아온 바리 공주는 자신이 약물을 구해 오기로 한다.	
바리 공주는 생명수를 구하려고 저승으로 떠난다.	
바리 공주는 약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목적의 달성
바리 공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수를 구한다.	
돌아오는 길에 바리 공주는 이미 죽은 부모의 상어를 만난다.	
바리 공주가 구해 온 약수로 죽은 부모를 살린다.	신(神)이 됨
바리 공주가 드디어 무조(巫祖)의 자리에 오른다.	

◎ 무당신선이 바리공주에게 요구한 노동의 의미

무당신선의 요구	노동과 출산의 의미
약려수를 주는 조건으로 9년간의 노동과 출산을 요구함.	9년간의 노동 → 당대 여성의 노동 일곱 명의 자식 출산 → 출산의 고통



바리공주의 여성성을 통한 부모 구원을 암시함.
전통 사회의 남성 우월 의식을 비판함

◎ '바리공주'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징 - '여성의 수난과 그 극복'

바리공주는 버려진 여성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위업을 성취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티프상 여성 수난이라는 한국 문학적 특징을 가진다. 여성의 수난과 극복은 ① 큰 고난 후의 성취, ② 집에서 쫓겨난 딸이 나중에 집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 ③ 불우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각각은 여성의 지체,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에 대한 비판, 극단적인 상황 제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으며 많은 수난을 당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지체를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락줄거리) 바리 공주는 옛날 어느 왕국의 일곱째 번 공주로, 왕비가 딸만 계속해서 낳게 되자, 이에 화가 난 임금에 바리 공주를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버리나,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양육된다. 바리 공주가 15세가 되었을때,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은 바리 공주를 버린 죄로 병에 걸렸으며 신선의 약수를 먹어야 낫는다는 꿈을 꾸게 된다. 임금은 바리공주를 찾게 되고, 바리 공주는 언니들이 못 가겠다는 것을 자청하여 홀로 약수를 찾아 먼 길을 날아 순식간에 삼천 리를 간다.

이 때가 어느 때나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이라. 이화도화(梨花徒花)만발하고 향화방초(香火芳草) 홀날리고 누른 피꼬리 [黃鶯] 는 양류간에 날아 들고 앵무공작(鸚鵡孔雀) 깃 다듬는다. 뽕꼭새는 벗 부르며 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 달이 솟네.

앞아서 멀리 바라보니 어령성 금바위에 반송(盤松)이 덮혔는데, 석가세존(釋迦世尊)님이 지장보살(地藏菩薩)님과 아미타불님과 설법(說法)을 하시는구나.

아기가 가까이 가서 삼배나삼배 [三拜又三拜] 삼삼구배(三三九拜)를 드리니,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나? 날김생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이어든 어찌하야 들어왔느냐?”

아기 하는 말이, / “국왕의 세자이옵더니 부모 소양 나왔다가 길을 잃었사오니 부처님 은덕(恩德)으로 길을 인도하옵소서.”

석가세존님 하시는 말씀이, / “국왕에 칠공주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세자 대군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너를 대양서촌(大洋西村)에 버렸을 때에 너의 잔명(殘命)을 구해주었거든 그도 그려 하려니와 평지 삼천리를 왔지마는 험로(險路)삼천리를 어찌 가려느냐?”

“가다가 죽사와도 가겠나이다.” / “라화(羅花)를 줄 것이니 이 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 바다가 있을 테니 이것을 흔들면은 대해(大海)가 육지가 되나니라.”

(중략줄거리) 바리공주는 다시 길을 떠난다. 가는 길에 가시성 [荊城] 과 철성(鐵城)에 가로막히나 부처님이 주신 라화를 흔들어 통과할 수 있었다. 성에 갇혀 있던 지옥 갈 이들에게 바리공주는 극락왕생을 빌어 준다.

아기가 한 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유리(靑琉璃) 장문(牆門)이 서 있고, 북에는 흑유리(黑琉璃)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貞烈門)이 서 있는데 무상신선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다온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하고 눈은 등잔만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댕 [釜蓋] 만하고 발은 석자 세치라.

하도 무서웁고 끔직하야 물너나 삼배를 들이니, / 무상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김생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 왔으며 어디서 왔느냐?” /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무값 가지고 왔소?”

“총망길에 잇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비어 주소.”

석 삼 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 산전바더 주고 가면 어떠하뇨?”

“그도 부모 봉양 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천지(天地)로 장막(帳幕)을 삼고, 등척으로 벼개 삼고, 잔디로 요를 삼고, 때구름으로 차일(遮日)을 삼고, 셋별로 등촉(燈燭)을 삼어 초경(初更)에 허락하고, 이경(二更)에 머무시고, 삼경(三更)에 사경오경(四更五更)에 근연 맺고, 일곱 아들 산전바더 준 연후에 아기 하는 말씀이,

“아무리 부부 정(情)도 중하거니와 부모 소양 늦어감네. 초경에 꿈을 꾸니 은바리가 깨어져 보입니다. 이경에 꿈을 꾸니 은수저가 부러져 보입니다. 양전마마 한날 한시에 승하하옵신 게 분명하오. 부모 봉양 늦어가오.”

“그대 깃든 물 약려수이니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 비든 나무는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 “물 구경도 경이 없소”

memo

“뫼동산의 꽃 구경하고 가고.” / “꽃 구경도 경이 없소.”

“전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 왔거니와 이제는 여덱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나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 아기는 걸니시고 어린 아기 업으시고. / 무상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좇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

(후략 줄거리) 바리 공주는 약수를 구하여 부모를 살리고, 무속의 신이 된다. 아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고 무상신선은 산신이 된다.



※ 하회 별신굿 탈놀이 / 봉산탈춤 [수특 264p/267p]

1. 96년 봉산탈춤이 출제된 이후 탈놀이가 모습을 감췄다. 2017년은 사설 모의고사가 판쳤던 한 해였던 만큼 이외성을 가진 작품에 힘을 주었다. 물론 교과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힘이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탈놀이의 빈출 문제

1. 지배층 풍자
 - 무지함, 탐관오리, 허세 등 풍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
2. 양반을 풍자하는 인물 등장!
 - 대표적으로 하인으로 등장하는 초랭이!
3. 언어유희, 해학적 표현 다수 등장!
4.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다.
5.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전통극의 특징이다.

◎ 양반과 선비의 대화에 드러난 언어 유희

탈춤 대사의 중요한 특징인 언어 유희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양반의 세도 자랑에 선비는 '사대부', '문하시중'이란 말에 맞서 '팔대부', '문상시대' (사 곱하기 이는 팔! 그래서 팔대부, 하 보다 높은 건 상 그리고 중 보다 큰 것은 대'라는 따위의 말 장난이다.) 로 응수한다. 언어 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풍부한 기지와 날카로운 어조로 인생을 풍자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언어 유희를 통해 신분과 벼슬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체 논쟁을 벌이는 양반과 선비의 무지와 허위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 초랭이, 할미, 백정의 극적 기능

- 초랭이 : 익살스런 대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양반과 선비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분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세 사람이 차이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신분 질서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 할미 : 도덕 군자인 체하는 양반들 역시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욕심과 성적(性的) 관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한다.
- 백정 : 극중 상황을 희극적으로 만들고 양반과 선비가 대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성에 집착하는 양반들의 위선적 태도를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 양반과 선비의 대립에 담긴 민중들의 풍자 의식

〈양반과 선비의 대립〉		〈풍자의식〉
부네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	➔	여자에 집착하는 양반들의 모습 풍자
지체, 학식의 우열에 대한 다툼	➔	가문과 학식의 허구성 폭로
우량(牛囊)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	성에 집착하는 양반들의 허위 의식 비판

memo

제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

<전략> 양 반 : 허허, 애, 부네야. (양반, 부네 어울려 춤춘다.)

선 비 :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여) 예끼! 고양한지고. 예험 예험.

부 네 : (양반과 춤추다가 선비의 기침 소리를 듣고 선비에게 간다.) 선비 어른 내 여기 왔잖나?

선 비 : 오냐 오냐, 부네야. (부네를 안듯이 춤춘다.)

양 반 :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춤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런 망할 년의 요부(요부(妖婦))가? 어흠 어흠.

부 네 : (양반의 기침 소리에 다시 양반에게 간다.) 양반 내 여기 있잖나.

양 반 :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오냐 오냐.

부 네 :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선비를 본다.)

선 비 : (부네와 눈길이 마주치자) 아니, 저런 요망한 계집년 봤나? 예험 예험.

부 네 : (다시 선비에게 간다.)

양 반 :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놈의 선비가? 옹거니 여보게 선비, 이리 줌 오게. 저길 보면 좋은 구경이 있네. (선비에게 마을 쪽을 가리키고 나서 부네에게 간다.)

선 비 : (양반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돌아서서 놀라며) 아니, 저놈의 양반이? (양반에게 간다.) 여보게 양반, 이리 오게. 저기에서 각시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부 네 : (선비와 양반을 바라보며) 호호호, 내 때문에 저래 싸우는구나.

양 반 : (선비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아니, 저놈의 선비가? 나를 속여? 여보게 선비,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는가?

선 비 :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양 반 : 아니, 그럼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초랭·이매 :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흉내낸다.)

양 반 : 암 낮고 말고.

선 비 : 뭣이 나아, 말해 봐.

양 반 :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 비 :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 반 :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 비 :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 반 :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던.

선 비 : 아-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試大)인데…….

양 반 :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 비 :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時大)가 크단 말일세.

양 반 : 그것 참 별꼴을 다 보겠네.

